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2월 25일(주일) 제1423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

성도, 이주민, 차세대 모두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31일에는 온누리교회 캠퍼스별 ‘송구영신예배’

12월 24일(토)과 25일(주일)은 성탄주일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주향한 찬양 사역팀이 ‘글로리아(존 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주경배 찬양사역팀(도곡)이 ‘빛의 축제’를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이주민과 차세대도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온누리M미션은 12월 25일(일) 오전 10시 30분 안산M센터에서 성탄연합예배와 ‘M Festival’을 개최한다. 온누리M미션 소속 외국어예배 부서와 성도, 이주민들이 총출동한다. 온누리M미션 성탄연합예배에서는 유세르게이 목사(러시아어예배)가 메시지를

전한다. M Festival에서는 각 외국어예배 공동체가 특순과 위십, 스킷 드라마 등을 선보인다.

김포M센터는 지난 12월 17일(토)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주민 등을 초청해서 ‘Christmas For You’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이주민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양재 여성 사역팀과 연습한 찬양, 소고춤 등을 선보였고, 2부에서는 자선장을 열었다.

차세대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12월 24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성탄축하집회 ‘가려진 별빛(Hidden Starlight)’을 개최했다. 파워스테이션 찬양, 파워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12월 25일(주일) 차세대예배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성탄갑티슈)을 나눠준다. 성탄갑티슈에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탄기도문, 슈퍼북 영상 시청 자료 등이 들어있다.

12월 31일(토)에는 온누리교회 캠퍼스별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7시, 9시 30분, 부천 오전 9시, 오후 7시, 수원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9시 30분, 대전 오전 10시, 오후 9시 30분, 남양주, 평택 오전 10시 30분, 오후 9시 30분, 인천 오전 9시, 오후 7시, 강동 오전 11시, 오후 9시 30분, 양지 오전 9시, 오후 9시 30분, 영종 오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1월 1일 신년예배는 캠퍼스별 일요주일예배로 대체된다.

/ 정현주, 김영선, 홍하영 기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열기 뜨겁다!

월~금 오전 5시 3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열기가 뜨겁다. 한과 속에도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시작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이어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진리의 예수님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19일 ‘은혜와 진리’, 20일 ‘예배와 진리’, 21일 ‘자유와 진리’, 22일 ‘성령과 진리’, 23일 ‘거룩과 진리’를 주제로 설교했다(메시지 4-5면). 이번 주간에는 이재훈 목사와 외부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12월 26일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27일 이재훈 목사, 28일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은퇴), 29일과 30일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빈민사역)가 설교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엔젤트리 감사합니다”

이웃 5,786명에게
따뜻한 선물 발송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편지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2022 온누리교회 엔젤트리에서 이웃 5,786명에게 따뜻한 선물을 나누고 있다. 뜻밖의 선물과 기도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이웃들의 인사가 사회선교본부로 전달되고 있다.

사회선교본부 이기훈 목사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엔젤트리에 직접 접수한 사연이 20% 증가했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엔젤트리를 통해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가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인천, 수원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인천 김승수 목사, 수원 김승훈 목사

인천과 수원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린다. 인천온

누리교회 담당목사로 김승수 목사가 취임하고, 서경남 목사가 이임한다.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는 12월 25일(주일) 오후 2시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수원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김승훈 목사가 취임하고, 김소리 목사가 이임한다.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는 12월 28일(수요일) 오후 7시 30분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맛있는 말씀 해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눅 16: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눅 16:9).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상당한 난제 구절이다. 필자도 학창시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다.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씀과 심지어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세기 유대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재산을 양도받은 관리인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임무에 실패했다. 압박한 해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적 적용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배제시키고 있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주인이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 즉, 재산 관리인을 해고하는 장면이다. 청지기는 해고 이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빚진 자들을 불러 놓고 그 빚을 줄여준다. 기름 100말을 빚진 자는 50으로 줄이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줄여준다. 호의를 입은 빚진 자들은 훗날 청지기를 기억하고 그를 도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은 이 장면을 보고 자신의 청지기를 칭찬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신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 16:8).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미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세기 유대 배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금지되었다. 비유의 주인 역시 금지명령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기름과 밀을 화폐 대신 빌려주는 것으로 이자를 챙긴다. 이를 알고 있는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채무를 각각 줄여주는 행위를 한다. 이 행동이 청지기의 불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청지기가 줄여준 기름 50말과 밀 20석은 당시 관례에 따른 청지기의 이익금(커미션) 내지는 애시 당초 주인이 과하게 부과한 이자였다. 따라서 주인은 해고 이후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 청지기의 태도를 비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에 탄복하며 칭찬한 것이다.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9절 말씀이다.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다. 불의의 재물은 불법하게 취득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재물의 속성을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친구 되는 가난한 자, 즉 이웃을 위해 구제하며 살아야 한다.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마 6:2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고 또 자비롭게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재물은 결코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물질을 이웃들을 향해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나라는 자비를 베푸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성숙한 일상

12월 26일~1월 1일

전도서 9:1~12:14,

야고보서 1:1~11

**목상포인트 1:**

사람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며 이루신다. 그것이 사람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의인도 악인도, 부해도 가난해도, 강해도 약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등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내게 맡겨 주신 사람과 일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지 묵상하자.

▶사람의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에게 죽음은 일반이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주어진 모든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 스올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목상포인트 2: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채찍과 같아서 백성의 잘못을 책망하고, 잘 박힌 못과 같아서 백성을 견고하게 세워 준다. 책을 쓰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을 위한 교과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해 아래 모든 게 헛되고 허무한 가운데 전도자의 마지막 권고에서 성도가 기억할 인생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지혜가 많은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많은 잠언을 지었다. 그가 기록한 진리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아서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한다. 책을 쓰는 일에는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에도 피곤함이 뒤따른다. 전도자는 최종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목상포인트 3: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편지로 삶의 실전을 강조하기에 ‘신약의 잠언’이라 불린다. 야고보는 먼저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조언한다. 시험은 믿음을 시험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것이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다. 시험이 주는 영적 유익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시험, 인내, 믿음, 지혜에 대한 하

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면의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묵상하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른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낮은 형제(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헛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시험을 통과하기 쉽지 않지만, 시험당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을 기억하고 묵상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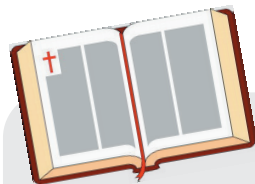
엄마를 위해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엄마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찾아갔는데 어쩔 일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연락을 분명 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약속을 깜박하는 일이 많고, 마트나 병원 등에 다녀온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서 당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병원, 대학병원에서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본인의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두려우실 텐데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을 걱정하십니다. “못 볼 꼴 보이기 전에 죽고싶다”고 하시며 우울해하십니다. 이따금 병의 증상으로 올라오는 화와 짜증을 보며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엄마의 증상이 더디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시고, 기적처럼 병 진행이 멈추고 평안한 일상을 살도록 기도해주시고, 만에 하나 모든 기억을 잃어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옆에서 간병하는 아빠와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12장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산만하다고 지적합니다. 일정한 주제가 없고, 여러 구절이 연결점 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기에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논리를 조율하는 표현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고, 동시에 진정한 관계와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는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며 감사하고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시키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할 때 한 가지 주제와 논리 속에 담기 어렵습니다. 때로 논리적 연결성이 결여되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연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삶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삶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을 꼽으라면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15절).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의 아픔이 진정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관계, 혈연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혈연으로써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관계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첫째, 거짓이 없는 사랑이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9절).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좋은 것에 꼭 달라 붙어 있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위선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선이란 자기를 나아보이는 존재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선이 포함된 거짓이 필요 없습니다. 야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실제 자기보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고, 훌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틈을 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일부를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교회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셨기에 야나니아와 삽비라가 실려 나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교회를 거룩하게 다루셨던 이유는 거짓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는 공동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는 진리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서로 사랑을 추구하면서 진실을 버리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게까지 이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모습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사랑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선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10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13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14절).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성도들과 나그네에 대한 사랑,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신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성도들로, 성도들에서 나그네로, 나그네에서 핍박하는 자로 사랑의 대상이 점점 확대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결코 그 자체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점점 확대됩니다. 거짓이 숨어 있는 사랑, 가식과 위선이 있는 사랑은 절대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는 사랑, 위선과 가식, 거짓이 포함된 사랑은 점점 축소되고, 결국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

둘째,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11~12절).

열심을 내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어야 합니다. 열심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열심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 그 자체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위선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나의 거짓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진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공로 의식과 보상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돌아올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유가 되어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하고,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다른 기준으로 그 일을 하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과송 받은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 사역을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나바는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움으로 안디옥교회가 사도

행전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은 바나바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보냄을 받아 안디옥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 바나바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찌면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바울을 세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으로 두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인내심이 큼니다. 때로 상처받을 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심각하게 결여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

셋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이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마십시오”(16절).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과 불화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많은 수가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제가 있었던 당시에 노예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사회처럼 똑같이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천한 사람들’은 당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신분제도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진정한 공동체가 가능한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똑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는 게 어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정말 귀한 간증들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말을 끄는 마부가 주인과 함께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마부가 신실하게 섬기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 지역 유지였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마부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마부를 장로로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웁니다. <13면에 계속>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 12월 19일 월요일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14

이재훈 목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도전에 처해있습니다. 그 도전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의 도전입니다. 이 현상은 진리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흐름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법과 제도, 문화, 생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질서,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DNA가 두 개의 실이 서로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듯이 은혜와 진리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진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은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으면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진리에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도 문제지만, 은혜 없는 진리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분리하는 습관은 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을 해쳐야만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 살기에 이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윤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더

높은 진리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축소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축소하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사람들을 속이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만 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거짓으로 속이는 관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에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진리임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0일 화요일

예배와 진리

요한복음 4:23~24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라는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모든 삶을 아는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이야기 주제를 바꿉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참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뜻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이게 만들면 그것을 신비롭게 여깁니다. 많은 종교에 석상과 목상 등이 있는 이유입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많은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

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끝난다면 예배당 안에서만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1일 수요일

자유와 진리

요한복음 8:31~36

이재훈 목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 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죄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장에 오래 갇혀있던 새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껏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요?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살

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원리가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금지 명령만 있었습니다. 그밖에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금지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자유로우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을 받았기에 본능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합니까? 본능대로 살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 먹지 않는 한 가지 진리만 지켰다면 자유로운 축복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지를 판단하려면 멈출 수 있느냐, 그만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돈에 대한 탐욕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죄의 중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하든 죄의 중력에 이끌림

니다. 십자가가 죄의 중력에서 우리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남아있는 영향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중력을 이기는 진리의 법칙에 순종할 때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악보를 떠올립니다. 연주자와 악보가 하나 될 때 자유롭게 연주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할 때 얻는 것입니다. 악보가 진리이고, 우리 삶이 악기입니다. 연주자가 악보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존재, 문제, 구원, 행복, 자유 모든 것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 12월 22일 목요일

성령과 진리
요한복음 15:26~27
이재훈 목사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성령님을 ‘보혜사(保惠師)’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늘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몸으로 더는 우리 곁에 계시지 수 없어서 떠나가시는 것이 엄청난 슬픔이자 연약함일 것 같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보다 능력 있는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명칭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명칭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요 16:13).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셨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도망치

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었을 때 변화되지 않았던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진리의 성령님이 임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율법지식의 허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하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깨달음을 동반합니다. 영·훈·육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 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훈·육에 임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에 온전히 침투하실 수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악을 끊어내시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려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를 깨닫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역사를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의 앞날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3일 금요일

거룩과 진리
요한복음 17:17~19
이재훈 목사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세 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단어는 성도였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의 의미가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제사장과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과 성막 등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나 이교도의 군대도 거룩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칭의’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선언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노력으로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도달하는 성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알려고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

하고, 붙잡고, 기뻐할 때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누립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둘째,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어 있는 악의 세력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거룩은 일차적으로 분리와 구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세상으

로 들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수동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립과 분리가 아니라 접촉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보존되면서 악을 치유하는 거룩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방법

질풍노도 시기의 세 가지 원인



민성원 박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전문 자문위원, 숙명여
대 아동심리치료 전공)

부모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그분의 뜻대로 잘 기르도록 부모를 보내셨다.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까지 자녀는 부모의 품안에서 자라기 마련이다. 이 시기는 자녀도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에,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우리 아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예민해요” 등의 문제를 호소한다. 예전(아동기 때)과 같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르게 고쳐 놓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청소년 아이는 점점 부모의 품안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한다. 왜일까?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상이라는 것이다. 부모는 이 시기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청소년기 자녀들을 떠올리며 “너무 특이해!”라고 반응할 때, 여기저기서 동의표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불균형하고, 불균형하고, 독특하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질풍노도라는 말의 원어는 ‘Storm & Stress’다. 폭풍과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조합이 질풍노도의 뜻이다. 폭풍우는 비바람보다 훨씬 세고 거칠다. 폭풍우에는 방향이 없다. 예측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폭풍우와 같은 집단을 대표하는 용어가 ‘청소년기’다.

부모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 자녀를 보며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런데 부모만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청소년기 자녀들은 불균형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 시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청소년 당사자다.

그렇다면 이 질풍노도 시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성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성인보다 성호르몬 분

비가 약 45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성적 충동이 높아지면서 본능적인 충동이 높아지고, 공격적인 충동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서적 동요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인지발달에서 오는 불균형 때문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 생기고,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존재, 정의, 진리, 가치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 개념들에 자신을 대입해 보며 추상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등 진로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시간이다. 한 번에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이 혼란을 겪고 방황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의 뇌 발달 영향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의 뇌가 아동기의 뇌와 성인기의 뇌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뇌는 변연계(변도체)라고 하는 감정의 뇌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다. 이때 뇌가 아주 급격하게 발달한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일상 언어나 표정을 향해 “왜 나한테 화내!”, “왜 짜증내!”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청소년기 자녀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감정의 뇌가 급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하는 뇌인 대뇌피질(전전두엽)은 완만하게 발달한다. 완만하게 발달하는 뇌와 급격하게 발달하는 뇌와의 간격이 정서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문제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비행, 우울증, 공격성, 주의력 결핍, 자살 시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가 보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 행동은 자녀가 느끼는 내적 갈등에 의한 혼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청소년기다. 우울증이 가장 많은 집단이 청소년 집단이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호르몬 변화, 인지발달, 뇌 발달 등으로 여러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관심이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접촉점을 가졌을 때 자녀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개선된다. 부모 자녀 관계가 향상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진로 성숙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2월 24~25일 본문(마 1:19~23, 마 2:1~12)



1.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마 1:21, 23)

2.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마 2:1~12) 친구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축하 편지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진을 찍고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6.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려요



우리들 이야기

* 서빙고온누리교회 차세대 꿈땅 친구들이 대림절(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켜지는 절기)을 보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사진으로 확인해보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크리스천들이 결혼존중법과 같은 악법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콜스 펠로우스 한국지부 대표)

지난 12월 13일 미국에서 동성혼을 연방법으로 법제화하는 ‘결혼존중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지칭한 결혼(성별과 무관하게 성인이 원하는 대상과 맺는 파트너 관계)과 성

경에서 지칭한 결혼(한 남성과 한 여성 간 평생의 언약적 관계)이 의미하는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1a)는 말씀으로 이 상황이 황망한 성도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역사학자 글렌 선사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세금과 같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누가 정의하는가?’, 천부인권은 누가 정의하는가?, 여성과 남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양심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결혼은 누가 정의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 해답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로마서에서 복종하라고 한 ‘위에 있는 권세’, 즉 가이사(정부)의 역할은 선행을 보상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존중법은 동성혼 커플을 위해 축하 케이크나 화환, 축하 카드 제작,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에 대한 권위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존중법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양보하지 않은 사례

공적 영역에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글렌 스크리브너(저술가, 복음주의 사역자)는 역사상 중요한 사회 변화를 일으킨 십자가의 증인들을 사례로 설명했다.

첫째,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가 영아살해 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당시 관행이었던 원하지 않는 영아를 길에 버려 죽게 만드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에 대항해 기독교인들이 버려진 (특히 여자) 아기들을 거두어 길렀다. 그 결과 로마 변방의 박해받는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가 ‘영아살해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 자체를 바꿔 놓았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법과 정책 변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정치, 법과 정책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

둘째, 살인을 인기 있는 오락거리로 전락시켰던 로마의 검투사 경기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텔레마쿠스(수도사)는 몸소 결투를 막으려다 원형경기장에서 순교했다. 텔레마쿠스의 순교로 호노리우스 황제는 검투사 경기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셋째,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실제 폐지되기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를 법으로 폐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스크리브너의 요점은 세 가지 변화(영아살해 금지법, 검투사 금지, 노예제도 폐지)는 교회가 국가 법제 변혁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즉, 십자가의 증인들이 연합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카타콤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버려진 아기를 구출해 여긴 것이나 텔레마쿠스 수도사,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동료들이 신앙을 실천한 결과 실제 법과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국가와 달리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변역을 위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법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하며 보여주는 방식으로 더 나은 입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법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법은 사람들이 설교로 배워야 할 것을 실제

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검투사 경기를 방해하는 텔레마쿠스 수도사에게 돌을 던졌던 관중들은 법으로 검투사 경기가 금지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따르게 되었고, 결국 검투사 경기는 로마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된 교회는 결혼존중법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악법에 대항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가이사에게 분항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인이라 시인한 술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순교였다.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한 로마 사회에서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은 곧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도 국회의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전하고, 투표하고, 양심에 반하는 술한 일들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항의하고, 평화로운 집회로 모일 수 있는 등 많은 선택지가 있다.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편안함이나 인기,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신앙적인 타협이 선택지가 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교분리’ 같은 개념 때문에 교회가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조셉 배콤은 유튜브 변증론 시리즈 ‘What would you say?’에서 그 말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문구는 흔히 헌법이 종교 단체나 심지어 종교인들이 정부와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오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래 정교분리는 미국의 연방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정부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행사되는 것을 걱정하는 코네티컷 댄버리 지역의 작은 침례교파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구였다. 그 편지에서 제퍼슨은 “종교는 오직 인간과 그의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문제이며, 인간은 자신의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으며... 수정헌법 제1조가 ‘교회와 국가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을 쌓았다”고 썼다. 그러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정교분리의 개념은 본래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교회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처럼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정교분리에 관한 오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의 근간이 된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결코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사적 영역의 문제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반기독교적 계몽주의 세계관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십자가 증인으로서 기여(역할)

생명의 가치, 결혼과 성의 목적과 의미 등에 관한 법과 정책은 종교적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서 가정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 성과 결혼의 가치를 존중하고, 양심에 따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허용하는 체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에 이에 따라 법과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의 안녕을 위해 법과 정책 변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정치, 법과 정책 변화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가가 중요하다. 동시에 “정치가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아니”(오스 기니스)며, “구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찰스 콜슨)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최우선이자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 꿈꿔라!

“슬기롭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방법(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사야 43장 16~19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나간 해와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사 43:18)고 한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과거 실패의 기억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고 남을 만큼 놀라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 지나갔다(고후 5:17). 예수님 안

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 실패를 떨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사 43:16)라고 소개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18절)고 하면서도 홍해를 가른 역사는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실패는 잊어버려야 하지만,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

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찾아보자.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날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안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은혜의 기억을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다.

셋째,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인간에게는 새로운 일이란 없다(전 1:9). 인간이 하는 일이란 늘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사 43:19a) 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것이다(사 43:19b).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

의 역사를 발견한다.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수록 오히려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 인생이 사막과 같을수록 강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드시기 때문이다. 인생이 광야나 사막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새로운 기적을 꿈꿀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꿔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김승수 목사
(여호수아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하기!

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첫인상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선입견을 품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을 알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수많은 감정과 느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 느낌과 감정을 경험하게 한 삶의 다양한 과정도 들어야 한다. 삶의 다양한 과정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다. 듣는 사람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나쁘다’,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쌓여서 현재를 살아가고, 세상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된다.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만 보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너는 왜 유독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거야?”라고 말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그 자체로 수용과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물론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누구보다 배우자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누구

보다 잘 모를 때가 있는 대상이 배우자일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왜 그리 많은 부부가 갈등 속에서 살아갈까? 어쩌면 배우자의 단면만 보고 이해하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늘 에너지 넘치고 의욕적이었던 삶의 패턴을 가진 배우자가 어느 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인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늘 밝은 사람인데 왜 위축되어 있어. 이건 당신의 모습이 아니야!’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 늘 밝았던 배우자라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밝은 모습이 배우자의 모습인 것처럼 위축된 모습도 배우자의 모습이다. 배우자가 느끼는 느낌과 생각도 배우자의 고유한 것이다. 배우자가 꿈꾸는 미래도 배우자가 가지는 고유한 배우자의 한 부분이다. 한 면만 보고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흡사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사람 전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배우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왜 이리 짜증을 낼까?”라면서 그 사람의 한순간 행동 파편인 짜증에만 시선을 맞추면 배우자가 짜증만 내고 화만 내는 인격체로 느껴진다. 상대방의 짜증을 파편이나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상대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다. 전체는 충분히 괜찮은데 배우자의 일부에서 짜증을 내고 있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배우자를 전

체적으로 이해하고 넉넉히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를 보려는 관점으로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가 깊이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배우자를 전체적인 관점이 아닌 부분으로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부부 갈등이 심할 경우 전혀 보지 못했던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분노가 가득한 눈빛과 격앙된 목소리로 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한다. 부부 갈등은 부부 사이에 심각하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이유로 서로 분노하고 싸우기도 한다. 오해,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앙금이 남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부부는 결혼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분노를 쏟아냈던 배우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배우자의 전체가 나에게 화를 냈고, 나를 무시했고, 나를 위협했다고 이해하게 된다. 배우자의 전체가 나에게 큰 고통을 준 가해자 그 자체가 된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아서 다시 부부의 조각난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용기 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작업이 매우 힘들 수 있다. 배우자의 전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용납하고, 웃고, 안아줄 수 있겠는가? 배우자를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배우자의 전체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이해하지 않고, 배우자의 일부분

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배우자는 좋은 부분이 많은 최고의 나의 사람”이라고 사고의 전환을 하면 수월하게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잘 익은 과일의 극히 일부분이 상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몸에 작은 종양이 생겼다면 그 부분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 작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결국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악성 종양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심각한 갈등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짜증 내는 수준에서부터 부부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부부 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배우자를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하고, 부부 관계의 끈을 붙잡는 것이 유익하다. ‘여전히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평생 배우자와 함께 결혼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결혼 생활에서 잠시 불어오는 광풍을 극복하고, 다시 손을 잡고 웃어줄 수 있을 것이다(시 51편, 행 13:21~23).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이석준, 추상미 대표가 소개하는 연극 '스크루테이프'

지옥행으로 인도하는 세 악마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대학로 TOM2관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또 다른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연극으로 새로이 탄생한다. 오는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대학로 TOM2관(종로구 대학로8가길 85)에서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막 오른다. 추상미(배우, 영화감독), 이석준(배우, 연출가) 부부가 대표로 섬기는 '야긴과 보아스 미니스트리'가 제작했다.

지난 12월 21일(수) 추상미, 이석준 대표를 만났다. 추상미 대표는 "야긴과 보아스 미니스트리는 뮤지컬과 공연을 만든 '야긴 컴퍼니'와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보아스 필름'을 합친 법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창작 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야긴

과 보아스 미니스트리의 첫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야긴과 보아스 미니스트리의 목표는 크리스천들과 비신자들,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우리의 비전과 비슷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작가로서, 변증가로서 판타지 작품들을 썼는데, 작품들이 모두 복음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전하고 있고, 영화나 연극으로 극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기독교적 내용이지만 극으로 변환했을 때 재미와 흥미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연극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극 스크루테이프의 내용은 이렇다. 세 명의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들이 그들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없도록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삶,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 두려움을 이용한 무기력함, 사랑과 분리된 성욕, 자신을 숭배하는 이기심 등 인간 영혼에 내재된 욕망을 부추겨 영혼을 잠식하려는 악마 지침서를 전달한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의도와 달리 흘러가고 만다. 그 과정에서 스크루테이프들이 분열과 상실로 치닫는다.

원작과 연극 스크루테이프의 다른 점이 있다. 악마가 세 명이라는 사실이다.

"원작에서는 스크루테이프가 한 명이지만, 연극에서는 세 명이 나옵니다. 셋이 하나 되는 하나님(삼위일체)이 아닌 셋이 따로 놀면서 반목하는 악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극은 통찰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들의 열띤 대화와 논조를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뒤집어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통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상미, 이석준 대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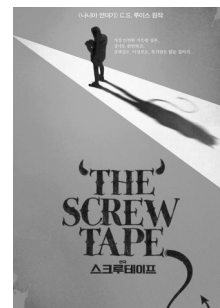
"지난번 'C.S. 루이스의 밤' 행사에서 이 연극 일부를 선보였는데 초기 단계여서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

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공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 연극을 시발점으로 기독교 콘텐츠도 공연문화예술계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2023년 1월 6일(금)부터 2월 4일(토)까지 대학로 TOM2관에서 막 오른다.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4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주일에는 공연이 없다. 설연휴 1월 23일(월)과 24일(화)에는 오후 3시와 7시에 공연한다. 배우 황만익(뮤지컬 '모래시계', 드라마 '돼지의 왕' 출연), 정의욱(영화 '늑대' 출연), 이은주(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출연), 노은하(영화 '경관의 피' 출연), 김동민(연극 '섬마을 우리들' 출연)이 스크루테이프를 연기한다. 티켓은 전석 6만 원이고, 인터파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문의: 070-7702-9053, 550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시간 내서 꼭 찾아가야 할 바로 그 교회

한국 역사와 교회사를 함께 품은 '승동교회'

관광명소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인사동은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를 품은 곳이었을까? 서울 북촌에는 관세자들의 저택이 즐비했다. 수백 평에서 수천 평에 이르는 한옥들이었다. 1895년 신분제가 철폐되었고, 거대 저택에서 허드렛일 하던 하인들이 사라지면서 큰 집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또 서양식 신식 주택들이 지어지면서 한옥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오는 각종 물품이 판매되었다. 도자기, 그림, 붓, 베틀 등 흔히 '골동품'이라 불리는 것들을 팔았다. 을지로와 명동 주변, 인사동에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명동 상가들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인사동으로 모여들었다. 지금은 인사동만 남아서 '전통 문화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전통 향기가 물씬 나는 인사동 언저리에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붉은 벽돌로 된 교회가 있다. 한국기독교 역사사적 제1호로 지정된

승동교회(勝洞教會)다. 승동교회만큼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또 있을까? 완고했던 신분제를 복음으로 넘었던 무어 목사와 백정 박성준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서 정말 유명하다. 예수를 믿은 이후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달은 박성준이 천민해방 지도자로 성장했다.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만민공동회 연사가 되어서 나라 사랑도 설파했다.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이자 독립군 군의관이 된 박서양(드라마 제중원 주인공)은 박성준의 아들이다. 백정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교회를 뛰쳐나가 흥문석골교회를 설립했던 양반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 된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박성준이 먼저 장로가 되고, 왕족 이재형이 뒤따라 장로가 된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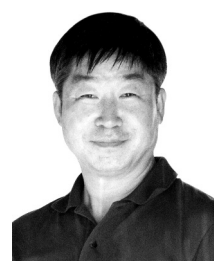
승동교회는 31만세운동 유적지로도 지정

되었다. 1919년 도쿄에서 유학생이 '28독립선언'을 하자 승동교회 청년회장 김원벽이 각 학교 학생지도자회의를 교회에서 개최하고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족지도자들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기획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탑골공원과 교회가 가까웠던 관계로 31만세운동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31만세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제의 만행을 보고 11명의 동료 목사와 함께 '12인의 장서'를 작성해서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차상진 목사도 있었다. 22살 청년 여운형이 클라크 목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민족지도자로 성장한 곳도 승동교회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기 드문 흔적을 남긴 부흥사이자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김익두 목사도 승동교회에서 활약했다. 일제강점기 암흑한 세월에서도 민족 사랑을 외쳤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였다. 한

국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다가 순교하셨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짧은 글로, 어설픈 필설로 승동교회가 걸어온 길을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가 승동교회에 있다. 매우 뚜렷한 흔적으로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사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한국의 교회사를 알겠는가? 시간 되면 갈 곳이 아니라 시간 내서 꼭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승동교회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대학청년부 사랑애틀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종료



CHPLUS청년부가 지난 12월 3일(토) 사랑애틀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사업이 그 막을 내렸다. 지난 12월 3일(토)과 10일(토) 진행된 사랑애틀눔과 12월 10일(토)부터 25일(주일)까지 이어진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끝났다.

‘사랑애틀눔’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

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1천 55가구에 생필품, 쌀, 반찬 등을 전달했다.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에서 청년 800여 명이 참여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섬기는 사업이다. 전국 74개 지역교회, 족방촌, 다문화센터 등지를 방문해서 성탄예배, 어린이 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환경미화, 선물 전달 등을 했다. 대학청년

부 11개 공동체 97개 팀에서 청년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세린 자매(Pole2대학부)는 “대학청년부 겨울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피켓, 2022 크리스마스 캠페인

지난 12월 23일(금)과 24일(토) 서울 강남과 홍대, 신촌 일대에서 아름다운 피켓(대표 서윤화 목사)이 ‘2022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국 교회와 기독교단체 등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요’, ‘태아도 어린이예요’,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지켜주세요’

등의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스티커 설문조사(태아발배지 증명), 북극곰탈 이벤트, 퍼레이드 등도 했다.

아름다운 피켓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2011년부터 이어졌다.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변화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문의: 02-703-4620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도농 행사

떡국떡, 농산물(쌀, 사과, 서리태 등) 판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사회선교부)에서 도농 행사를 한다. 도농행사는 농어촌교회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성도들에게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설날 떡국떡과 햅쌀, 사과, 서

리태, 팥, 감말랭이, 들기름, 참기름 등을 판매한다. 12월 24일과 2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도농행사 판매데스크)에서 현장 주문 및 판매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소개할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

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열린다 성경참가자 모집

테마와 영성이 있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 ‘열린다 성경 스티디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3년 1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튀르키예, 2023년 4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이집트와 요르단을 여행한다.

튀르키예 편에서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집트와 요르단 편에서는 ‘출애굽 여정’을 주제로 성경을 살펴본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문의: 010-4902-1022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이메일(hha0@onnuri.org)로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와 함께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면 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FA 20기 청년 선교사 모집

2023년 1월 10일 접수 마감

청년 선교사 ‘FA 20기’ 주인공을 모집한다. FA는 ‘Frontier Agency movement’의 약자로 온누리교회에 청년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세워진 대학청년 단기선교 사역이다.

FA 20기 사역은 2023년 2월 6일부터 4주 동안 합숙 훈련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지 사역,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디브리핑(Debriefing)을 진행한다. 선교 지역은 레바논과 인도네시아다.

FA 20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청년

부 멤버십 6개월 이상’,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허입신청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fa@tim.or.kr)로 제출하면 접수가 끝난다. 접수 마감은 2023년 1월 10일까지다.

/ 홍하영 기자

다음세대 복음화 위한 미디어 선교 협력

CGNTV, 포도나무교회, (사)새물결선교회, (사)청년선교 업무협약

CGNTV가 포도나무교회, (사)새물결선교회, (사)청년선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위한 영상이나 작은 교회들의 주일학교를 돕는 양육 콘텐츠 등을 제작해서 다음세대 복음화 관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새물결선교회는 ‘십자가와 성령’ 등 각종 콘퍼런스와 집회를 개최하면서 교회를 깨우고, 회복의 불씨를 지피는 초교파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청년선교에서는 ‘청년세대 회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군 선교, 캠퍼스 선교, 해외 선교로 영역을 나눠 청년을 섬기는 사업이다. 제대한 믿음의 청년들이 캠퍼스나 직장의 부흥 씨앗이 되어 해외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일본어예배부, 3년 만의 코자마 집회

7개 교회와 단체 일본어예배부 200여 명 참석

일본어예배부가 지난 12월 11일(일) 사랑의교회에서 ‘2022 코자마(KoJaMA) 크리스마스 찬양집회’(이하 코자마 집회)를 개최했다. 코자마 집회는 서울에 있는 일본어예배부 소속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일본 선교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코자마 집회에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일본복음선교회 협회(JEM),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사랑의교회, 살롬교회, 일본비전교회 성도들과 선교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코자마 집회에서

는 요시다 코조 목사(서울일본인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요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깨닫는다면 더욱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요히로 사카에 성도(사랑의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도 병행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과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관리’, ‘미션 헬퍼십’, ‘이주민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월 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12월 세례자

■허브
입교
김승연 000324
김원정 970726
남윤희 971117

세례 간증



/ 부 한창학, 모 고지영, 유아 한시우, 한서윤

두 아이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에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다. 다섯 번의 시술과 시술 끝에 첫째 아들 시우를 만났다. 시우를 키우면서 둘째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코로나19로 인간관계 단절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가족이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다시 난임병원을 찾았다.

어린 시우를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쉽지 않았다.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실패였다. 결과도 슬펐지만, 출산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시술해서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연임신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둘째 아이가 우리 부부를 찾아왔다. 전혀 생각도, 기대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처럼 둘째 서윤이가 찾아왔다.

서윤이를 임신하고 만가지 않는 9개월을 보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새벽, 양막이 터지고 진통이 시작됐다. 새벽부터 집을 쉼 없이 병원에 갔다. 그런데 수술하지는 이야기가 없었다. 첫째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았기에 병원에 가면 바로 수술하고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수술 준비 사인이 떨어졌다. ‘드디어 수술실로 가나보다’ 했는데, 다른 산모의 내원으로 6시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 수술이 밀리자 화가 났다. 오후 4시 51분, 오랜 기다림 끝에 서윤이를 품에 안았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어릴 때는 시편 139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내가 잉태되는 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모태 속에서 크고 자라는 게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지으셨고, 태어날 날과 때를 정해주셨다고 확신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시 139:14).

주가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고백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에 알리는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양천공동체 다락방 아웃리치



/ 김보영 집사(양천공동체)

고향 풍경과 고향 교회

양천공동체 안드레다락방이 경북 영주에 있는 여륙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교회 앞에 산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장면이 상경한 여륙교회 성도들이 늘 그리워하는 고향 풍경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륙교회 성도님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 성도 대다수가 연로한 할머니들이었다. 복음에 관심 없는 동네 어르신들도 초청했다. 할머니들만 오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할아버지들도 잔치에 참여하셔서 여륙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

잔치가 시작됐다. 4순 순모님이 소천하신 어머니가 생전 좋아한 노래라며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어르신들은 신이 나서 앙코르를 외쳤고, 4순 순모님은 트로트 ‘어머나’로 화답했다. 방모님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를 찬양 가사로 개사해 복음을 전했다.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정말 좋아하셨다. 흥겨운 춤사위도 빠지지 않았다. 3순 순모님은 만지 않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간증을 들려주셨다. 어르신들이 3순 순모님 간증을 경청하셨다. 2순 순모님은 어르신들을 위한 선

물을 예쁘게 포장해 오셨다.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의 표정에 기쁨이 담뿍 묻어있었다.

여륙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방장님이 여륙교회 성도님들께 CGNTV와 기독교 OTT ‘풍당’ 앱을 소개했다. 고향의 어르신들이 ‘풍당’ 앱 설치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면 기뻐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고향이란 어떤 곳일까? 그리움, 따뜻함, 포근함이 있는 곳, 생각만으로도 안식을 주는 곳이 고향이자 안식처일 것이다. 어릴 때 조개 줍던 추억, 개울을 자전거로 건너며 학교 다녔던 이야기, 고향에 내려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푸짐하게 먹고 왔다는 자랑을 늘어놓는 지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것이 바로 고향 아닐까? 고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여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여륙교회 아웃리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양재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조문영 성도(송파B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임신했을 때 기쁨보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숙제에 이어 드디어 임신이라는 숙제를 마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어렵게 만난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7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이를 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남았다. 부모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해 새벽기도회에서 ‘새로 올 아기가 우리 가정의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정말 그 기도대로 기적 같이 아기가 다시 찾아왔다. 임신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치 앞도 모르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 하지만 출산하고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지 못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이 돌봄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말씀묵상과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또 아기와 집에서만 지내는 일상이 나를 답답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순원과 지인의 추천으로 양재 헬로맘스쿨을

들었다. 첫 시간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출산 전에는 다툼 적 없던 남편에게 사소한 것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남편이 출근하는 것조차 질투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인해 느끼는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입지 않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부부의 사랑이 먼저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했다. 무엇보다 양육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았다. 오직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 대신 옆에서 아이를 잘 지켜보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재 헬로맘스쿨은 아이와 육아에 대한 감사를 함을 잊고 방향성을 잃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다. 양재 헬로맘스쿨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힘을 때마다 돌아켜보면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기도한다.

영종온누리교회 성도의 간증



/ 진희수 성도(영종온누리교회)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종온누리교회

올해 크리스마스는 조금 더 특별하다. 커다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5년 전이었다. 지인과 함께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관계기술훈련’에 참석했다. 멀리 영종도에서 교육을 위해 서빙고온누리교회에 참석하는 게 부담이었다. 어느덧 12주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모임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영종온누리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그렇게 느리지도 않았다. 부지가 결정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더욱 커졌다. 영종온누리교회 임시 예배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다. 아직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벌써 완성된 느낌이 있었다. 임시 예배처소인 상가 건물에서 소박하게 시작된 예배는 4주 만에 발 디딜 틈 없이 성도들로 가득해서 앉을 자리가 부족했다. 차세대 예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공간을 준비해야 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 건물도 없는 교회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깃들어 모이기를 힘쓰는 자녀들 같았다.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은 하늘을 향한 배의 모양을 하고 있다.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성도들의 삶을 담고 있는 방주의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다. 첫개척예배 설교에서 영종온누리교회를 담당하는 도육한 목사님은 “영종온누리교회는 이제 ‘천국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고 선포하셨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관문도시 영종도에서 우리교회는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섬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현재 영종온누리교회 임시예배처소에서는 매주 차세대를 포함해 180여 명의 성도가 1월 말 선물로 받은 교회 입당을 기다리며 예배드리고 있다. 또한 매일 새벽 50여 명의 성도가 영종온누리교회의 첫 번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의 길, 진리와 생명을 묵상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있다. 선물의 기쁨이 영종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장로칼럼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니 모처럼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축하한다. 성도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탄생일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주후 3세기부터 등장했는데 이는 로마 가톨릭이 교회에서 유대적인 색채를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유대 절기를 대체할 교회 절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일설에 당시 로마가 섬기던 태양신의 축제일이던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대체했다고 한다.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임신을 유대력 5월(Ave월, 태양력 7월 초) 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의 남편인 아비아반열에 속한(눅 1:5) 스가라 제사장이 성전 제사를 섬길 때 나타나 엘리사벳이 임신을 알렸다고 한다(눅 1:11~25).

역사 자료에 의하면 아비아반열은 유대력 4월(Tammuz월)의 마지막 2주를 섬겼는데 이는 태양력 6월 말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스가라가 성전 제사 섬긴 이후 집에 돌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한다(Ave월 초)(눅 1:23~25).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 수태 고지가 엘리사벳 임신 6개월 때이므로(눅 1:24~26) 엘리사벳의 6개월 임신 기간과 마리아의 9개월의 임신 기간을 더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력 7월(Tishrei월)이 되는데 이때는 초막절 기간(태양력 9월 말에서 10월 초)이다.

또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 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월 말은 추워서 밤에 들에서 양 떼를 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눅 2:6-8).

혹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하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단들은 성도에게 접근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치거나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성경공부에 가면 교회에서 못 배우거나 잘못 배운 것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우리는 이런 일에도 잘 대비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유대 절기들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출 23:14~17, 레 23:4~44). 중요한 성경적 사건들은 이 절기에 맞춰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이 초막절이고, 십자가를 지신 날이 유월절, 부활하신 날이 무교절, 성령세례 임한 날이 오순절(칠칠절),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크고 무서운 날이 나팔절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기억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해나가는 나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 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 이 토끼는 늙은 토끼일까? 어린 토끼일까? 새벽에 일어나니 분명 늙은 토끼일 거다. 아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니 어린 토끼일 성싶다. 세수부터 하려는 것을 보니 외모에 신경 쓰는 사춘기 청소년이거나 지난 밤 과음으로 술 깨기 위해 나온 직장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세수하려고 보니 다른 동물들이 물을 먹지 못할까 봐 양심상 물만 먹고 간다는 김경집 인문학자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21세기는 입체적 사고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 미래를 살려낼 수 있다”고 했다. 과연 인문학자다운 발상과 결론에 잠시 감탄했다. 그런데 깊은 샘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른다. 세상의 물은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깊은 샘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해 저무는 인생길에 있는 노인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성공의 맛도 보았다. 그러나 결국 “해 아래 새것이 없고 허무하다”고 목이 말라 한다. 젊은이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추구하며 현재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 그것도 일시적일 뿐 그들은 여전히 갈증 난다고 소리친다.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생각이 났다. 새벽에 깊은 어둠과 찬바람 뚫고 영적 웅달샘에 달려오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7~38)

이 보혈의 샘, 은혜의 샘에 와서 마실 때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는다. 이 샘물을 마시면 정결해지고,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다. 기쁨의 샘이 흘러나온다.

다양한 사고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우리 미래를 살려내는 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갈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 혐오와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목이 말라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며 비틀거린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는 전도하면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한다. 내 열정으로 전도하면 쉽게 지치고 메말라진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나누는 것이 전도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사 55:2~3).

나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신나게 생수를 마시러 달려간다.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늙은 토끼라고 고백하면서 말이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호스피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는 하루에 버스 3~4대 정도만 들어오던 외진 동네였다. 전 화기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아서 “OO어머니, 전화왔어요!”라고 크게 외치면 전화 받으며 오는 그런 동네였다. 작고, 외진 곳이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모두 가족처럼 지냈다. 힘든 일을 함께 고민하고 집을 나눠서 지는 그런 곳이었다.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누구네 할 것 없이 친하게 지냈다. 같은 유치원에 다녔고, 같은 초등학교에 갔고, 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유치원에서 하는 발표회도 같이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온갖 사고도 함께 쳤다. 교회에도 함께 다녔다. 교회 친구 어머니는 같

은 학년 아이들을 모아서 과외를 해주셨다. 고등학교 때 교회 ‘문학의 밤’ 행사에서는 나를 전도한답시며 함께 열을 올리기도 했다. 소중한 평생 친구들이다.

얼마 전 그 평생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천국으로 갔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천국환송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는 데 유족(친구 아내)이 말했다.

“저 영정 사진은 사실 내년 초 회사 입사를 위해서 미리 찍어놔던 이력서용 사진이에요.”

그 친구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새벽예배를 드렸고, 새벽예배 오시는 권사님들을 위해 교회 봉고차 운전까지 하며 섬기던 친구였다. 교회 재정부장으로 7년째 성실히 섬기기도 했다. 소천하기 전 주일 ‘2022년 교회 재정보고’를 마쳤으며 기뻐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은 신실하게 매듭을 지었는데, 아내인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가벼웠

다며 눈물 흘렸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전 5:15).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마 찬가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뒤, 30년 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친구의 천국환송예배를 드리며 불현듯 생각했다.

‘만약 그날(내 장례식)이 오면 천국환송예배 말씀과 찬양은 이것으로 해달라고 정해놓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0000년 00월 00일 박성천 목사 천국환송예배, 본문 시편 23편 1~6절,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도 생각해보았다. ‘사랑하는 아내, 세희, 세미에게. 하나님이 너

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들보다 조금 먼저 가지만 다시 만날 거니까 소망으로 극복하려무나. 아빠는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거야.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딸들을 불러서 나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라는 내 질문에 딸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예, 아빠! 우리 천국에 갈 거예요!”라고 힘차게 외쳤다. “아빠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환송예배에서 너희 둘이 시편 23편 1~6절 말씀을 읽어주고, 묘비에도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빠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유언 이란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펼쳐서 딸들에게 읽어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도 불러줬다. 딸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천국 소망을 나눌 수 있어서, 미리 유언을 전해 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십시오

나중에 마부를 신학공부를 시키고, 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탈피할 수 없었던 노비제도를 가장 먼저 탈피하고 변화시킨 공동체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비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구습을 탈피하고, 조혼을 철폐하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일으키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인지 누구든지 사랑하면 때로 마음을 졸이게 되고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냥 상자에 가두듯이 자신의 마음이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는 않겠지만, 상처는 받지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공동체와 순에서 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찢어지지 않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으로 낮아질 때 때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단어(humility)와 치욕(humiliation)의 라틴어 어원이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겸손으로 갈 수도, 치욕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넷째,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14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17~21절).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과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었기에 이 시대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취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마 5:43~45).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감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쉽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자신을 쉽게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좋아해서 도와줬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원수가 좋아져야 사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 원수에 대한 사랑과 좋아하는 감정이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굶주리고 또 목말라하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원어적으로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 세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진 것과 같다는 잠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로마서에서 잠언을 인용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4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취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발에만 비를 내려 주고 햇빛을 주시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둠만 있고, 비도 안 오고, 사업이 계속 망하면 1년 내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동일하게 내려 주시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그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올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이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이루는 관계이자 공동체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까지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나는 행복한 선교사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선교예배’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선교현장에서 고된 삶과 사역을 나누는데도 그 선교사님의 모습은 내가 본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낙도선교회와 연결되어 수년 동안 낙도사역을 했다. 남해의 수많은 섬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복음의 역사를 목도하며 따르는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 1995년 1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2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모든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셨다. 나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셨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1997년 1월 선교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

셨다. 3년 동안 적도 위아래 두 나라에서 정글 오랑아슬리(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지냈다. 약속의 말씀대로 넘치는 은혜와 행복을 누렸다. 크고 작은 위기와 시험 속에서 선교사의 삶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사무치게 실감했다. 그럴수록 결코 타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23년 전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발인 날 새벽에 도착해 겨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타지에 있는 셋째딸을 많이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엄마를 두고 다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잠시 머뭇거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사명자의 삶을 일깨워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 나의 행복은 어디에도 없음을 고백한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네팔장기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네팔 서부의 가장 낮은 곳이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가득 고인 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네팔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은 ‘쿠시(행복)’이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은 절대 나만 누리서는 안 되는 귀한 선물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때 더 큰 의미와 기쁨이 된다.

메마르고 황량한 네팔 서남부의 땅끝 국경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기적은 자신의 존귀함을 모른 채 문맹과 폭력 속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자신의 존

귀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인도와 의 국경 지역에서 빈번한 아동 인신매매와 각종 노동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는 일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의 집’(방과 후 학교)을 운영하게 하셨다. 서로 다른 종족과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매일 행복의 집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빛이 나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네팔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며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 선교사로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자 특권이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길을 나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자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 김영미 선교사(네팔)

서빙고

O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간: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안산온누리M센터 단기 봉사자 모집

내용: 미술전시회 작품 보호 및 안내

장소: 서울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용산구 소월로 109)

일시: 아래 일시 중 1~2일 봉사(11월 22일(화)~25일(금) 13:00~17:00, 11월 29일(화)~12월 2일(금) 13:00~17:00)

문의: 온누리지역아동센터(031-491-9601)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모집

모집: 몽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주시길

교사

시간: 유치부~초등3학년(11:00~12:30), 초등4학년~중학생(11:00~14:00)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양재

O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

모임: 202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수업: 2023년 3, 4월 토요일

장소: 도곡교육관 B동 1층 꿈아이홀

문의: 박정옥 코치(010-4394-9309)

*교사 자녀가 드림씨드 등록 시 등록비 할인 혜택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2로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53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숙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도쿄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서진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 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욱 김승경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대

도육환 려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철 박철중 박형준 배형삼

백성우 백인규 배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순
유진아 윤매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정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영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영 최대용 최성근
최형민 최영민 최용준 최중현

최희경 추대식 최성희 최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신대중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조은광 주하늘 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경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승경 김상수 김승완
김은하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연은 한해원 마주배
박씨마 박영규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상우애는 사가르 에릭 마

아를스톨즈 윌리엄 이성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랑 차재미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여람 김가희
김지환 강동규 김반석A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선 김의연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헤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세미 박은혁 박예슬 박유진

배지수 박찬양 박태연 박영민
배명지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송재찬 신기환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해애원 안류택 양현보
오국현 오성광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성하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신혁 윤종연
윤태정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선영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일이세영 이은푸로
이요한 이진수 이주원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목 이휘영

임광명 임노환 임동현 임승아
임정민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장지훈 정기은

정성민 정현영 정연상 정예은
정준혁 정주영 정희애 정영민
조민희 조슬기 지수정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우대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승기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환 권영석
강용성 권철준 강경선 강기철

◆목사(준전임)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목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영 김성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근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래 박상국 박성봉 박성근

박영대 박승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섭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연 백홍기 상병선 사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진 송일석
송재길 송창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대 안종민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양태진 오성연
우광남 원우원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윤기홍 윤성일 유은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장모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영 이현조 이희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광주 정문영 정병호 정보원
정순풍 정영선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영 정진하 정주광 정희원
조창진 조수일 조은일 조상록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태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광식 함선호 함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대표 홍범식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곽진성 권오혁 권영환 김세종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경돈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섭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욱 김영국 김희준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국 김재일 김철민
김정훈 김종완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식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현주 김형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호진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상규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해수 라상원 류기범
문영찬 문성찬 문영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병근
박병률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흥선 방찬중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정현 서태용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대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순 심길섭 심희무
심희은 안동혁 안상현 양상식

양 오영 양준홍 양준혁 양홍식
오 명 오병규 용내문 우승구
오승탁 오이식 우병진 유재홍

유영각 윤원덕 이기중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종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수완 이승배

이상준 이석일 이주완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학일 이현규 이흥선
임 홀 임관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모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정병호 정문규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문규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영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성호 조서구 최석민 최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람

진종구 차준환 최도성 최민철
최봉된 최영진 최정민 최정환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립 하주현 한백재
하영환 하필우 홍갑진 홍성택
한충희 한필규 함일섭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홍이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최도환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충훈 표규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경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정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병근 이수정 이성진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훈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연범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영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신희 박아령 박요섭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승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정미
이현우 장재우 장현호 장희진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규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태택 박선재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희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안정식 임한식 오명진
정석환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식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경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진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경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Lee Michael Lee

광고

QT 베이직 세미나 – Good morning God
일시: 1월 9일 월요일부터 2주간 시청 가능
강사: 조호영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내용: QT의 정의와 방법 (목상과 적용)
회비: 할인가 2만 원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QT 인도자 세미나 – QT 人 투게더
일시: 2월 20일(월) open (2주간 시청 가능)
강사: 두란노 QT 전문 강사
대상: 두란노 QT 베이직 세미나를 이수하신 분으로 소그룹(주역, 셀, 목장, 순 등) QT나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교회의 목회자 또는 평신도 리더십
회비: 할인가 4만 원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www.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원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재 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도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



시골 목사 전원일기

시골 목사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농촌, 어촌, 산골 오지에서 사명을 다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 빈 들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12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내레이션 | 배우 이일화



‘풍당’에서
다시보기

한 해 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CGNTV와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CGNTV 말씀달력과 함께 2023년을 준비하세요.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796-2243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